

나의 宗教觀

金允經

一. 宗教는 무엇을 이룸인가?

만일 哲學辭典이나 百科辭典이나 宗教學書類를 뒤진다하면 宗教라 하는 말의 定義를 無數히 들추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나 나는 그리 할 틈도 업고 짜라서 그리한 일도 업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에는 다만 나의 平素에 생각하던 그대로 나의 밋는 그대로 좀 적어서 管見 이나마 發表할까 합니다.

「사람이 엇지하면 矛盾이 업는 生活을 하여서 最高理想을 達할까?」 또는 「사람이 엇지하면 眞理를 가장 만히 實現하는 生活을 할까?」, 「엇지하면 眞理全體를 發見하고 또 그 眞理에 合하게 生活하여 볼까?」함인 人生의 最大問題인 同時에 그것의 解決이 또한 人生의 目的 이외다. 이 問題는 人生이 存在하게 된 새부터 오늘날까지 쉬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그 解決에 勞力하여 온 것이외다. 이것이 이른 바 宗教라 하는 것이외다. 다시 말하면 宗教라 하는 것은 全宇宙에 潛在하여 그것을 攝理, 支配하는 眞理를 發見하고 또 그것에 合致하려는 人生의 勞力을 이룸이외다.

二. 宗教는 必要한가? 아니한가?

그러한데 사람은 古今이나 東西나 男女나 老少나 賢愚를 莫備하고 다 苦痛, 滅亡을 忌避하고 幸福, 永存을 悲望함은 숨길 수 업는 事實이외다. 그리한데 늘 經驗에 經驗을 싸고 勞力에 勞力을 싸은 結果로 보면 眞理를 어긴 矛盾生活의 終極에는 늘 苦痛, 滅亡이 잇고 矛盾이 업는 眞理生活의 終極에는 늘 幸福 永存이 잇음을 알았습니다. 卽 矛盾生活의 終極은 「地獄」이 되고 眞理生活의 終極은 「天堂」이 됨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地獄을 避하고 天堂을 追求하려는 勞力은 어느 社會, 어느 個人에게던지 늘 볼 수 잇는 現狀이 엇습니다. 그러한 즉 人生이 잇다함은 곳 宗教가 잇다함과 同一한 意味의 말이 됩니다. 그리하여 宗教의 必要 與否는 贅論할 餘地도 업는 것이외다. 經濟的 物質이 人生에게 必要하냐하면 그러하다 할 것이며 道德이 人生에게

必要하나하면 그러하다 할 것이며 藝術이 人生에게 必要하나하면 그러하다 할 것이외다. 그러하나 宗教는 더욱 必要하다 할 것이외다. 왜 그러하나 하면 政治, 經濟, 道德, 科學, 藝術들은 人生의 一方面 即 一部分만을 意味한 것이로되 宗教는 人生의 各方面 即 全體를 意味한 것이며 前者는 人生의 現在를 解決하는 것이로되 宗教는 人生의 過去, 現在, 未來를 解決하는 것일 뿐 아니라 人生新人生의 關係와 아울러 人生 新宇宙의 關係까지 解決하는 것인 까닭이외다. 그러한 故로 宗教를 否認하거나 反對하는 者가 있다하면 이는 生活 自體를 否認하고 反對하는 愚者라 할 것이외다. 또한 政治를 爲하여 宗教를 否認한다하면 이는 部分을 爲하여 全體를 否認한다 함과 一般이며 經濟를 爲하여 其 外의 道德, 科學, 藝術의 어느 하나를 否認或은 反對한다 함도 그것들이 다 모이어야 全體를 일음도 不拘하고 一部分을 爲하여 다른 어느 部分을 破壞함과 同一한 어리석음이 될 것이외다. 마치 比하면 一個人을 完全하게 하려면서 손이나 발을 爲하여 全體를 죽이거나 손을 爲하여 발이나 발을 爲하여 손을 잘어 버리겠다 함과 一般이외다. 왜 그러나하면 위에서 말함과 같치 宗教는 人生의 全體를 抱括하는 것이로되 政治나 經濟, 道德, 科學, 藝術은 人生의 一方面만을 區分한 것인 까닭이외다.

三. 時代와 宗教

우에서 「宗教는 眞理의 表現」이라고 말하엿습니다. 勿論 歷史上에서 보는 바와 같치 東洋이나 西洋을 勿論하고 이른 바 「暗黑時代」라 함과 같치 特別히 暗黑하게 退步한 境遇도 업는 것은 아니외다만은 宗教라는 形式에 잇서서 古今이나 東西거 一般일 것이다. 그 內容에 잇서서는 다를 것이외다. 即 「眞理의 表現」이라는 그 勞力에 잇서서는 一般이나 그 結果에 잇서서는 다를 것이외다. 그리하여 어느 宗教던지 古代로 거스리어 올라 갈수록 오늘날에 非眞理라 할만한 것이 當時에는 最高 眞理라고 認定되엿습니다. 또한 오늘날에 우리가 最高 眞理라고 認定할만한 것이라도 將來에는 非眞理라고 認定될 것이 太多할 것은 過去를 밀우어 보아서 明白한 일이외다. 언뜻 생각하면 宗教의 進化나 發達이라는 말을 하기 쉬우나 宗教라는 것은 조금도 變化가 업고 다만 時代의 나아감을 쫓아 宗教의 理想(目的)을 達하여야가는 것이라 할 것 뿐이외다. 왜 그러나하면 眞理의 全部를 完全히 表現하는 것이 宗教의 理想或은 目的이 되는 까닭이외다. 또한 眞理의 漸々表現되어 가는 것을 보고 古今이 다름을 因하여 「眞理도 變化하는가?」하는 疑問이 생기々 쉽겟습니다. 그러하나 도모지 그러한 것은 아니외다. 眞理라면 萬古不易일 것이외다. 그 眞理를 追求하는 人生이 不完全한 것이기 때문에 眞理의 判定이 不完全하엿던 것 뿐입니다. 假令 比較하여 말할 것 같으면 옛적에는 太陽이 이 쌍

을 싸고 돌아간다고 龍이 비를 쫓아 나리어 준다고 하였으나 오늘에는 그것이 迷信에 돌아가고 地球가 太陽을 싸고 들어 地面의 水蒸氣가 空中으로 날아 올라가서 구름으로 잇다가 떨어지는 것이 비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地球가 太陽을 싸고 돌아가는 그 事實 自體는 幾千年 前이나 幾千年 後나 一定 不變이었으며 空中에서 비가 나리어 오는 그 事實 自體는 幾千年 前이나 幾千年 後이나 一定 不變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發見하여내는 사람의 判定이 틀리었던 것 뿐이외다. 그러나 地球가 太陽을 回轉하는 것과 水蒸氣가 비가 되는 것도 將來에 틀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眞理 自體는 時間과 處所의 如何를 不拘하고 少毫도 變動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眞理의 本體를 發見하지 못하였던 것을 證據할 뿐이외다. 그러한 故로 오늘날 우리가 가진 眞理는 人類가 地球上에 發生된 原始時代로부터 오늘날까지 數千年間 宗教生活-眞理 表現 勞力-의 認結果외다. 그러나 現在에도 無數한 矛盾이 싸이었습니다. 이 矛盾과 싸아서 생기는 苦痛이 完全히 批除되고 眞理만을 가지고 살을 그 때에야 人生은 目的을 達한 것이라 할 것이다.

四. 眞理란 무엇인가

이 우에서 眞理란 말을 만히쓰게 되니까 「眞理가 무엇이냐?」하는 疑問이 많이 생길 것이올시다. 예수가 十字架에 釘殺될 때에 빌라도 압해서 裁判을 當할 때도 이 疑問을 맞은 것이외다. 그러나 眞理는 멀리잇는 것이 아니며 곱히 잇는 것도 아니며 어려운 것도 아니외다. 宇宙 萬物이 存續되고 變化되고 作用되고 統一 支配되는 根本 原理외다. 即 萬物의 根本的 原因이외다. 여기에 基 因되지 아니하고는 成立할 수 업고 여기에 基 因되지 아니하고는 循環變化될 수 업고 여기에 基 因되지 아니하고는 存在할 수 업고 여기에 基 因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이른 바 人類의 存亡盛衰도 생길 수가 업는 것이외다. 이 眞理로 奇々妙々한 萬物이 創造되고 支配되고 變動되는 것이외다. 普通으로 흔히 하는 말에 「저절로 된다」거나 「自然히 된다」함이 하나도 이 眞理에 依據하지 아니함은 업습니다. 우리의 道德이나 法律은 例外도 잇고 犯할 수도 잇고 變更할 수도 잇스되 이 全宇宙에 充滿한 眞理(우리에게 發見되었거나 말았거나 不拘하고)는 秋毫도 例外가 업스며 秋毫도 犯할 수도 업스며 秋毫도 變更할 수도 업습니다. 萬古不易이외다. 眞理 밖으로 回避할 수도 업습니다. 眞理의 反逆된다하면 地理의 法則대로 結果가 나고야 맙니다. 全宇宙의 어느 귀퉁이를 勿論하고 眞理의 支配統一이 가지 아니하는 곳 이 업습니다.

그러하면 或疑心하시기를 「이 眞理란 것은 그러하면 結局 宇宙 萬物에 共

通한 原理 原則이 아니냐? 또 眞理를 表現한다는 宗教는 根本原理를 發見한다는 哲學이 아니냐?»고 하시겠습니다. 올습니다. 나는 宗教가 哲學이요, 哲學이 宗教라기를 躊躇하지 아니합니다. 다름이 잇다하면 이는 實現을 勞力하고 아니함이라고 하겠습니다. 卽 哲學에서는 眞理를 客觀하여 發見함으로 爲主하되 宗教에서는 眞理를 追求하여 眞理를 實現하고 眞理와 合一하려고까지 勞力하는 것이외다. 一般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眞理는 곳 하나님이외다. 이는 眞理라는 概念에 含蓄된 意味가 예수敎의 하나님이란 概念 中에 含蓄된 意味와 同一함이외다. 예수가 直接 말스민 것을 보면 自己는 하나님과 一體라 하고 또 自己는 곳 眞理(요한 福音十四章六節, 十七節, 十五章二十六節, 十六章十三節, 十七章十七節 요한 一書四章六節, 五章七節……)라 하고 또 「眞理의 神」이라하며 「하나님은 곳 眞理라」하는 斷定을 엇게 한 것이외다. 그러한데 이 眞理를 「말씀」或은 「道」(Word, or Logos) (요한 福音一章一節로 五節)라고도 하엿습니다. 예수敎理의 深奧함과 廣濶함이 여기에 잇다고 느기게 됩니다. 이만치 말하면 眞理가 무엇인지 짐작하게 될 것이외다.

五. 人生의 目的

예수의 說破하신 만흔 道理 中에 가장 나로 하여금 宗教生活에 執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갓치 너희도 온전하라」("You must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or "You are to be complete in goodness, as your Heavenly Father is complete.")함이외다. (마테福音五章四十八節) 그리하여 前에 적은 바 「하나님은 곳 眞理라」(요한福音一章一節로 五節, 同十四章六節)하는 斷定과 함께 나의 宗教生活의 根據를 일운 것이외다. 이것이 나의 人生觀을 일운 것이외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하는 말은 우에서 이미 말한 뜻으로 變구어 말하면 「眞理의 完全함과 갓치 人生도 完全하여 지어라」함이외다. 또 다시 말하면 「人格完成을 人生의 目的으로하되 그 完成 與否의 標準은 眞理에 두라」함이외다. 「眞理의 生活」(卽 「矛盾生活」이 아닌)을 할만한, 卽 神과 合致로 生活을 할만한, 神聖한 人格을 일음이 人生의 目的이외다. 이러한 이만이 누릴 賞을 예수는 天國生活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天國은 眞理와 한 가지로 求遠無窮한 것이외다. 「天國은 힘씀으로 엇는 것인데 힘쓰는 者는 袞을 엇는 것이외다」(마테福音十一章二節) 힘쓰고 애씀이 아니고는 엇지 못할 것이외다. 사람의 法에는 例外가 잇스나 眞理의 法에는 一毫도 例外가 업는 것이외다. 이것은 멀리 擧나서 그 證據를 探求할 것이 업습니다. 卑近한 人類 歷史上에서 만히 볼 수 잇는 것이외다. 곳 眞理와 同行하고는 衰亡함이 업스며 眞理에 逆行하고는 興盛함이 업습니다. 이는 國家나 民族이나 團體나 個人을 莫論하고 一貴한 眞理의 法

則이외다. 사람은 누구든지 幸福을 말합니다. 또 原합니다. 그러나 새가 보는데 그물을 가지고 잡으려고 쫓차가는 것은 새 잡을 方法이 아니외다. 그와 갓치 幸福을 잡으려고 幸福을 쫓차가는 것은 해옴기

을 잡는 方法이 아니외다. 오직 眞理를 表現할 生活을 할만한 人格을 完成하고야만 現在나 未來를 莫論하고 幸福이 自然 隨從하게 되는 것이외다. 事實上人生的 億千萬事는 他人 格完成을 目的함에 不過하는 것이외다. 그리하여 人生的 目的은 人格 完成이며 人格 完成의 目的은 眞理 表現에 있는 것이외다. 卽 人生的 目的은 眞理 表現에 있습니다.

六. 善과 惡

이에 짚아서 생기는 것은 道德問題의다. 道德에는 반듯이 무슨 一定한 標準이 있어서 그것의 合하는 것을 善이라고 하고 그것의 合하지 아니하는 것을 惡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한데 그 道德判斷의 標準을 세우는 問題가 그리 單純하고 그리 容易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他律的 標準論이니, 自律的 標準論이니, 功利說이니 하는 여러 가지 倫理學說이 생기게 된 것이외다. 勿論 至今도 그 여러 學說의 歸一할 바를 엿지 못하였습시다. 그러나 우에서 말 할과 갓치 人格을 完成하여 眞理를 表現함이 사람의 自的이라하면 道德의 標準 卽 善과 惡을 判斷하는 標準은 말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明白할 줄 압니다. 卽 眞理에 合하고 아니함이 그것의외다. 그러한 즉 사람의 行爲 中에 眞理에 合한 것은 善이며 眞理에 어긋어진 것은 惡일 것이 勿論의외다.

七. 眞理의 生活과 矛盾生活

이 우에서 善과 惡이 무엇인지 대강말하였습시다. 여기에서는 善의 生活 中 眞理의 生活과 惡의 生活 中 眞理生活에 對하여 卑近한 實例를 들어 簡單히 말하고 闕筆하려합니다.

善은 眞理에 合한 것이라 하였습시다. 다시 말하면 善은 眞理를 알기만 함을 이름이 아니고 行함을 이름과의다. 또한 惡이란 것도 眞理를 모름을 이름이 아니요, 알고도 行하지 아니함을 이름의외다. 哲學大家 特히 人生哲學와 元祖 쑤크라테스(Socrates)는 이르기를 「우리의 行爲는 各自의 悟了한 바에 依하여 行하지 아니 할 수 업다……알지 못하고 한 것은 참 德行이라 이를 수 업다. 德行의 根據는 知識에 있다……知識의 始作은 自己를 알 데 있다」 고 하여 늘 「너 自身을 알라」고 하였지만은 알면 반드시 行한다고는 斷定하기 어렵습시다. 勿論 行하는 것은 먼저 알은 것이겟지마는 알은 것이라고 반듯이 다 行한다고는 못할 것임니다. 아는 哲學者와 宗教家가 따로 잇고 論理學者와 道德家가 따로 잇슴을 보아 明白한 일이라 하겟습시다. 假令 阿片이 社會國家를 衰亡하게 할 쑤 아니라 自身까지 經濟的과 肉體的으로 衰亡

하는 原因이 된다 함이야 瘋癲白痴가 아닌 다음에야 누군들 모르겠습니까마는 알고도 實地에는 行하지 못함으로 矛盾生活을 하며 酒烟이 輕清的으로나 衛生上으로나 害毒이 되는 줄이야 누군들 모르겠습니까마는 實行하지 못함으로 矛盾生活을 하며 淫亂이 自滅地滅의 原因을 짓는 줄이야 누군들 모르겠습니까마는 實行하지 못함으로 矛盾生活을 하며 勞働이 어느 時代나 엇덕한 虎地의 사람임을 不拘하고 다 必要하다 함이야 누군들 모르겠습니까마는 遊衣遊食의 罪惡生活을 犯하는 것이의다. 또한 누구던지 眞理生活에는 幸福이 峯이며 矛盾生活에는 苦痛이 峯인 줄이야 理論으로던지 經驗으로던지 잘 알고 잇는 바의다.

우리 人生의 理想은, 憧憬하는 바는 完全한 眞理 안에 居함이외다. 그러나 現在 우리 社會에는 우리 環境에는 얼마나 甚한 矛盾, 撞着이 縱橫錯雜하여잇습니까 이것들을 批除하고 漸々眞理를 追求, 實現함이 우리 人生이라 합니다.

奔走한 生活이라 一貴한 集中된 精神으로 내쓰지 못하고 中絶을 하다가 다시 쓰고 中絶을 하다가 다시 쓰고함으로 論旨가 銑一連絡되지 못한 줄 압니다. 또한 諳아서 平時에 생각하시던 것이 卒地에 다 順序있게 생각되지 아니함으로 未備한 點이 만습니다. 더군다나 이 글을 쓰는 中間에 만흔 期待와 囑望을두던 愛友 朴承哲君이 千萬童 外에 京都帝大의 學窓에서 作故하였다(五月 二十一日 午前十時)는 悲音이 思考의 秩序를 攪亂시키기를 말지 아니함으로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故 朴承哲君을 設어하는 눈물 석긴 原稿라 紀念하는 뜻으로 여러분 압혜 들이으니 未備하나마 追悼文 대신으로 읽어 주심을 바랍니다.

(一九二五·五·三〇·晨二時)